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불채부락: 친구들 · 1999년 5월호



리얼라이즈



표지
 앞쪽: 정의만 상징 글자, 로이판웨이 들고 있는 이 글자는 대만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그 "아름다운 섬"에서는 교회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대만: 신앙의 40년*, 28쪽 참조. (사진 촬영: 크리스토퍼 케이 비길로우)

친구들 표지
 윌러스와 브라이언 기테후는 아프리카 케냐의 말일성도 개척자들이다. *윌러스 기테후, 케냐 나이로비*, 2쪽(사진 촬영: 바바라 진 존슨)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인생의 책임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12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네니"
- 14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하나님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 26 순결의 축복 바넷사 무디
- 28 대만: 신앙의 40년 크리스토퍼 케이 비길로우
- 42 성전 축복: 현세와 영원에서

청소년란

- 8 신앙으로 생활함: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 39 물문 메시지: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 40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 마리아 디 통슨과 제나 날슨
- 46 성전 참석 유형 태머리 리엄 베일리

친구들(별책 부록)

- 2 함께 나누는 시간: "나를 따라라"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4 어린 친구들을 위해: 마이클이 도와 줘요 빌로 웨스트우드
- 6 스트래튼 자매님의 기적 다이안 케이 커훈
- 8 심심풀이: 앞과 뒤 사우나 무니 가오사키
- 10 이야기: 사라의 취미 체릴 푸스코
- 13 게으름이라는 죄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4 친구 사귀기: 윌러스 기테후, 케냐 나이로비 바바라 진 존슨



46쪽 참조



28쪽 참조



12쪽 참조



친구들, 14쪽 참조

26쪽 참조



리아호나는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웨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제이 이 켈슨, 존 엠 매드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모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테일러

제작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벨 맥클린

선일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토마스 에스 그로버그, 데니스 커비, 제이슨 엘 멀포드, 디나 엘 소렌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권: 제 398호, 제 36권, 제 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의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달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 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카리비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May 1999 vol.36 No.5.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감사의 편지

저는 **레뜨와르**(프랑스어 판) 1998년 6월호에 실린 "초등학교-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를 읽고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레뜨와르**에 그런 기사를 실는다는 것은 저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형제와 자매들을 알도록 해주기 때문이지요.

저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친구들에게 그 잡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 토론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잡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 잡지를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실로 주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플레우레테 라니아보자오나,
안타나리보 마다가스카르 지방부,
안타나리보 제2지부

가족 강화를 위한 도움 요청

과테말라의 과테말라 시 남 선교부 소속 선교사인 저는 현재 지부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한 부부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성경과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찾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그 많은 **리아호나** 가운데서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한된 분량의 잡지에 그렇게 많은 말씀 주제들을 실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결혼과 가족 관계를 주제로 하는 기사가 좀더 많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다니엘 조셉 셔로스 장로,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 남 선교부

편집자 주: 저희는 잡지의 내용에 관한 독자들의 제안들을 환영하며 저희가 받은 제안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혼과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한 경험이나 제언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나 지부, 그리고 스테이크나 지방부 명칭을 적어 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기도 - 주님의 의지를 구함

1998년 4월호 **리아호나**(영어 판)에 실린 "치료를 위한 여정"이라는 기사에서 저는 "기도- '있을 것이 없어요'"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부터는 평안과 위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세핀 발레스 자매,
필리핀 나가 선교부



인생의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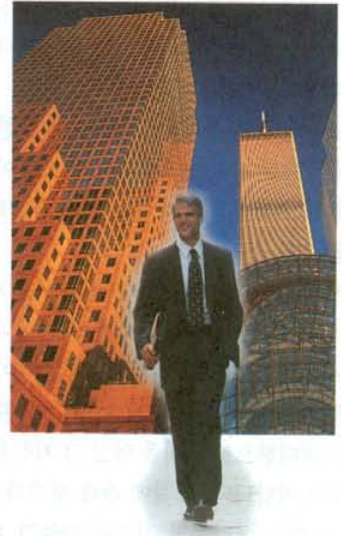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최 근에 저는 대학생 연령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현재와 미래에 겪게 될 몇 가지 인생의 책임에 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과 토론했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가지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직업에 관한 것
2. 가족에 관한 것
3. 교회에 관한 것
4. 자신에 관한 것

첫째,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하루에 여덟 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굉장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재물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은 불행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시간에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이 생과 관련하여 지극히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커다란 도전이며, 가장 커다란 만족은 훌륭한 가족을 양육하는 일에 있습니다.

물론 아내가 일해야만 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꼭 그 래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노력, 새로운 야심,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학교 교육을 받아 여러분이 택할 직업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맞서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무적이고, 생각하도록 만들며 또한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을 할 기회를 가져다 주는 직업을 택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래의 직업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소화하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해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이 생과 관련하여 지극히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음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며, 가장 커다란 도전이며, 가장 커다란 만족은 훌륭한 가족을 양육하는 일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계기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여러 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분이 받는 교육이 다양한 자질을 요구하는 많은 분야에서 직업에 관한 경력을 쌓는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정상적인 모든 젊은 남성은 아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젊은 여성은 남편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배우자를 맞기에 합당한 자신이 되십시오. 그 배우자를 존경하십시오. 그 배우자를 격려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반려자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하늘 아래서 결혼이 영원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반려자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당연히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고는 만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시간에 결혼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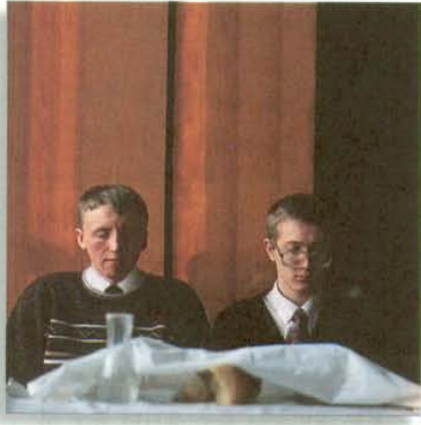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반려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존중할 수 있고, 항상 존경할 수 있는 반려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사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사랑과 충성과 성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을 파탄으로 이끌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결혼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며 때로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이혼이 너무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철저하게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젊고 용모가 준수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점점 키가 커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점차 작아지는 시기도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때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식탁 건너편에 있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는데,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던 손이 더 이상 곱지도 않고 패여 있습니다. 저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젊었던 시절의 모습들이 제 기억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젊고 건강한 아내가 아이들을 이리 저리로 데리고 다니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던 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음식도 만들고, 바느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온갖 살림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예회에도 갔으며, 책도 읽고 음악회에도 참석했으며,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였고, 참으로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또한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기나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었고 주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충실은 그 동안 또렷하게 간직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장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성한 손자녀들도 있으며, 또한 잘 자라고 있는 증손자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제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자부심과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어서도 안됩니다. 그저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용서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에게 가장 참되고 훌륭한 친구, 한결같은 후원자의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그리고 저 영원의 세계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사랑하는 반려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직관과 기도의 인도를 통해 내릴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의 봉사입니다. 교

회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도록 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모든 부름이 여러분의 능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조직의 많은 직책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비이기적인 헌신과 굴하지 않는 충성과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이 끝날 때까지 많은 직책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부름은 작게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교회에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름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름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름이 이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속한 와드의 성찬식에서 한 연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감독으로, 또 다른 많은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한 가지 놀라웠던 임무 지명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와 그의 아내가 최근에 교회로 새로이 개종한 세 아이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를 1주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간증을 쌓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녀가 와드에서 받은 임무 지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항상 곁에 있어 그녀의 질문에 답해 주었으며, 이해력을 깨우쳐 주었으며, 그녀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그녀와 그 자녀들이 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생활해 나갈 만한 힘을 지닐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을 너무도 많이 받았던 이 젊은 어머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리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을 키우기 바랍니다. 그 조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날로 강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회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여러분이 잃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

한 봉사가 여러분이 살아 있는 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저장소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굳게 잡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추구해야만 하는 다른 관심 사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신 행복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명상하고 숙고하고, 생각하여, 그 경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문화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명상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너무 분주하여 이리저리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덧없는 목표를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시간을 자기 반성과 발전에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저의 아버님께서 제 나이 정도이셨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분께서는 둘 담장이 있는 주택에 사셨습니다. 낮은 담장이었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면 아버님께서 밖으로 나가 그 담장에 앉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님께서 담장에 앉아 여러 시간을 보내며 말씀하고 쓸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숙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재능 있는 연사이고 또 작가가셨습니다. 또한 독서량이 대단하셨으며, 매우 연로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분은 성장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인생은 생각하는 위대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른 여러분의 필요 사항과 관심사는 연령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전부를 충분히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보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재미있는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운동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너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안락 의자에 앉아 내일이면 기억에서 잊혀질 시합을 보는 대신 읽고, 생각하고, 숙고한다면 자신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가 별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배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이다"(시편 8:3-5)

전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직업에 종사하며, 의로움 안에서 그리고 신앙으로 걷는 고귀한 가족을 양육하며, 놀랍고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성장하고, 때때로 혼자 앉아 인생에 대해 숙고하고 또 단

순히 생각하며,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

까이에 있고 또 신앙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전을 읽는 시간, 우리의 문화에서 훌륭한 부분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만드신 행복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명상하고 숙고하고, 생각하여, 그 경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문화를 취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인생에는 다음의 책임들을 포함하여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

- 직업에 관한 것
- 가족에 관한 것
- 교회에 관한 것
- 자신에 관한 것

2.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직업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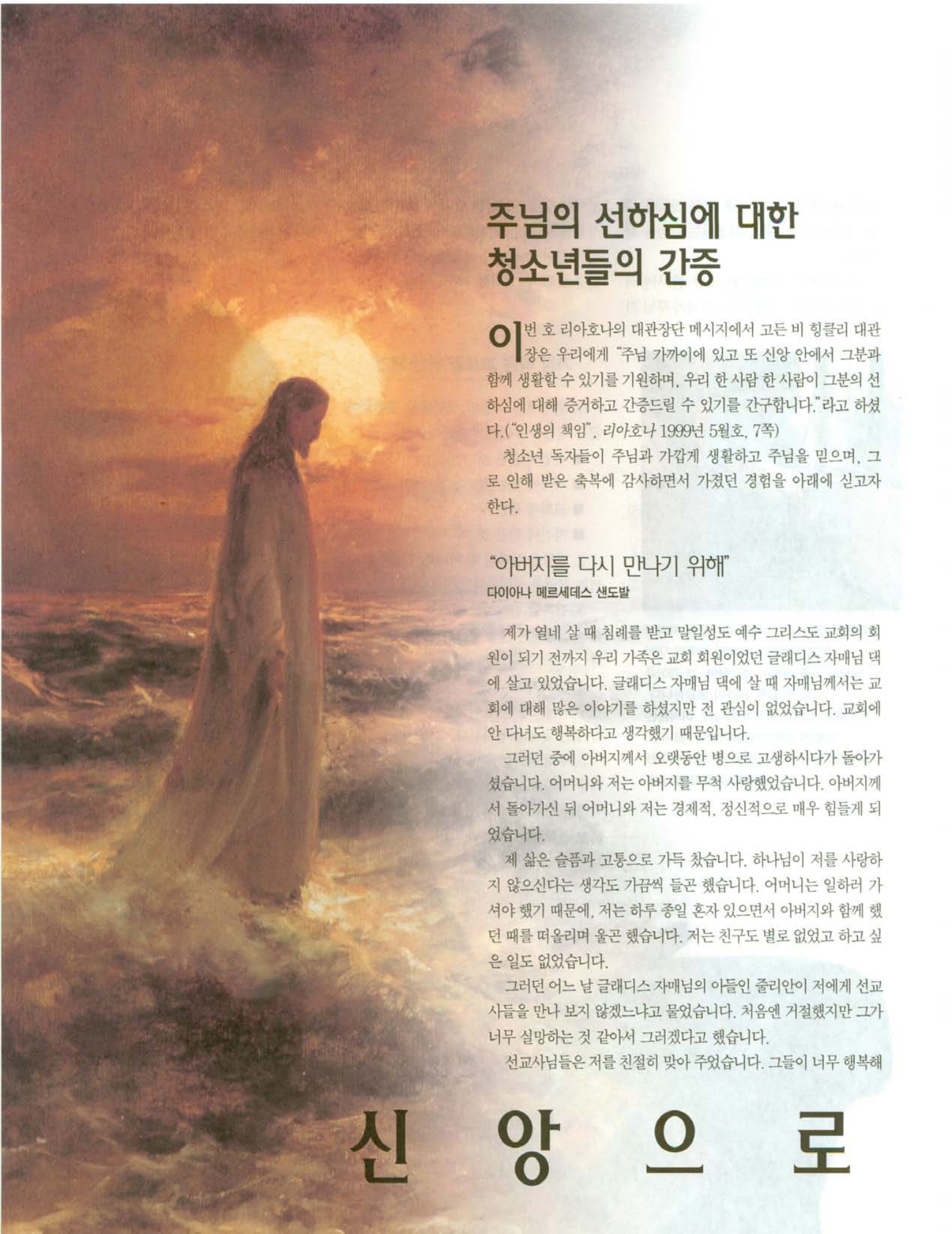
3. 결혼할 반려자를 정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4. 교회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도록 한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곳에서 봉사한다.

5.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행복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명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경

사진 촬영: 브라이언 케이 켈러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청소년들의 간증

이번 호 리아호나의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증거하고 간증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책임”,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7쪽)

청소년 독자들이 주님과 가깝게 생활하고 주님을 믿으며, 그로 인해 받은 축복에 감사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아래에 싣고자 한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다이아나 메르세데스 샌도발

제가 열네 살 때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은 교회 회원이었던 글래디스 자매님 댁에 살고 있었습니다. 글래디스 자매님 댁에 살 때 자매님께서도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안 다녀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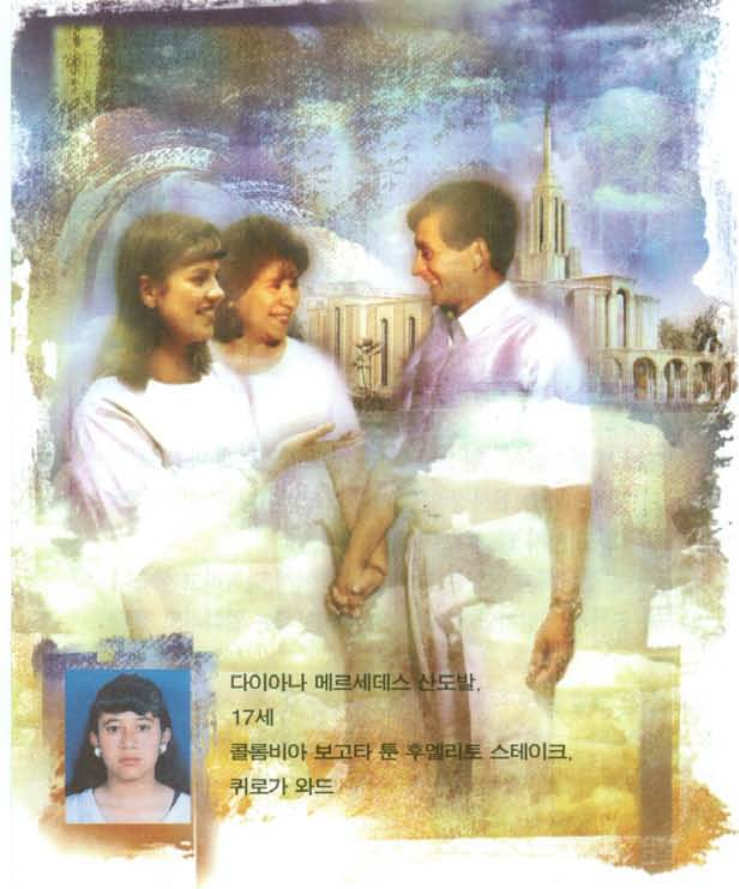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저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때를 떠올리며 울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래디스 자매님의 아들인 줄리안이 저에게 선교사들을 만나 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가 너무 실망하는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저를 친절히 맞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행복해

신 앙 으 로



다이아나 메르세데스 산도발,
17세
콜롬비아 보고타 툰 후엘리토 스테이크,
퀴로가 와드

보였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고, 누군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리 침례를 받아 줄 수 있으며,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고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침례를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후 어머니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행복하며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축복도 모자란 것인지 교회에서는 우리 나라에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행복하고도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생 활 함

“더 나은 것을 찾으려는 거야”

루이 미구엘 시아 세쿠에이라

1997년 5월 2일에도 저는 평소 때처럼 오전 여덟 시에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분이 저를 해고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개해 준 직업 소개소와의 문제와 제가 살 알지도 못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이 미구엘 시아 세쿠에이라,
22세
포르투갈 포티마 지방부
실베스 지부



결국 저는 해고되었으며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가서 해고되었다고 하면 할머니가 실망하실텐데.' 할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은 제가 일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작은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오늘 직장을 구해서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 직장

에서 해고된 게 틀림없어.' 한 2킬로미터 정도 걸었는데 마침 제 친구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공사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날 보더니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구는 원하면 그 곳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공사장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오전 여덟 시에 해고되었지만, 한 시간 반 후인 아홉 시 반부터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고 짧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큼니다.

“난 그에게 복음에 대해 말했다”

그라치엘라 구아달루페 누네스 헤르난데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마르코 아우렐리오 그라나도스 다빌라라는 남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친구로 사귀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 어머니께 허락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만으로 열여섯 살 때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친구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제가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가 꼭 개종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선교사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별로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토론을 계속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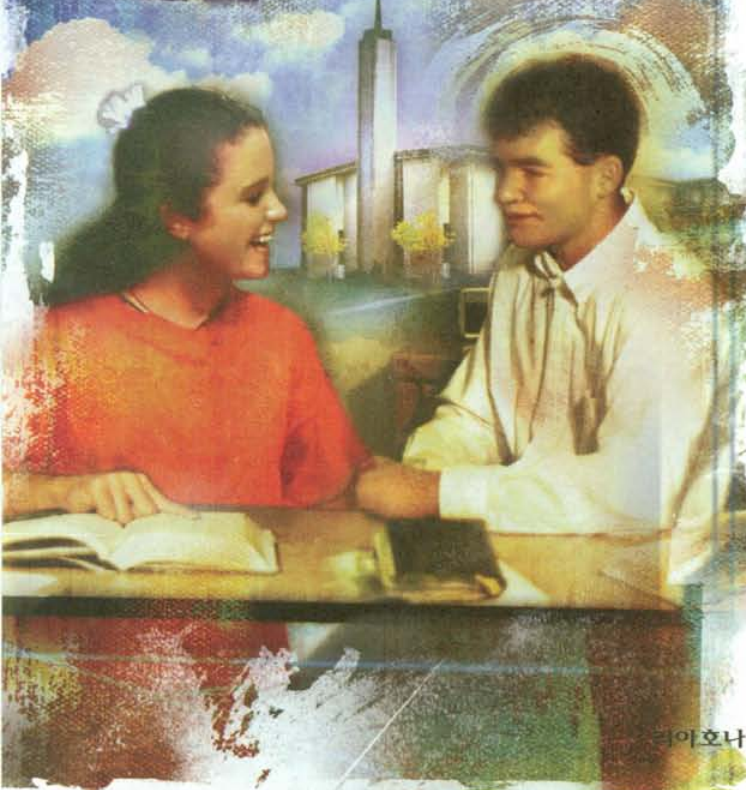
토론에 계속 참석하면서 침례받고자 하는 그의 소망도 커져 갔습니다. 불행히도 그 친구의 어머니는 외국에 계셨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1년 동안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세미나리에 참석했고 일요일 모임과 청소년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돌아오시자마자 그 친구는 어머니에게 침례를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승낙을 받은 뒤 마침내 1997년 7월 8일에 침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 다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려 합니다.



그라치엘라 구아달루페
누네스 헤르난데스,
15세
멕시코 셀라야 스테이크,
라우렐레스 와드





엘튼 존 다 코스타 산투스,
18세
브라질 캄피나 그랑데 스테이코,
프라타 워드



“분명하고도 확실한 느낌”

엘튼 존 다 코스타 산투스

1989년 8월 어느 날, 집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매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같이 들어 보자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의 말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과 물문경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이 다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방문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흥미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토론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해 보라고 항상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 두 번 참석했으며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전 자매 선교사님들에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매 선교사님들은 침례 받기를 거듭 권유했고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저는 그 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1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렸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꿈이나 천사의 방문과 같은 놀라운 시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저는 다음주부터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날 저는 신권회를 시작으로 세 모임에 다 참석했습니다. 기초 복음반에도 참석했고, 마지막으로 성찬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성찬식 도중에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불타 올랐고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확신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

하지만 분명하고도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제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고 온몸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저는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매 선교사님들에게 침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도 알고 계십니다. □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리아호나에서는 주님과 가깝게 생활하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얻은 청소년 독자 여러분의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Youth Articles,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내용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명과 투고자의 주소, 전화 번호, 워드(지부)와 스테이크(지방부) 명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사진 1장을 첨부해 주십시오.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플로리페스 루지아 다마시오 자매 (왼쪽에서 두 번째), 상파울루 성전 (아래)



플로리페스 루지아 다마시오 자매는 얼마 전에 브라질의 벨로 호리존테 스테이크 조아오 몬레바테 지부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상파울루 성전에 도착했다. 1997년 6월 3일에서 7일까지의 성전 방문 여행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최소한 세 차례의 의식에 참석했으며, 네 차례나 의식에 참석할 날도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이미 사별한 남편과 가족들과의 인봉 의식을 받았다. 그녀의 딸인 마리아 라이문도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5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와야 하는 이번 성전 방문 여행은 플로리페스 자매가 1993년에 침례받은 이후 세 번째 여행이다.

플로리페스 자매와 그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전혀 특이한 것이 없다.

플로리페스 자매는 1889년 12월 13일에 태어났다. 1888년 5월에 브라질의 노예 해방령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뒤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노예 출신으로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플로리페스 자매는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삶과 자유, 그리고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카세미로 호비노 다 실바와 결혼하여 열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남편은 예순 살에 세상을 떠났다.

1993년 7월 11일 103세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플로리페스 자매는 침례를 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일 거의 105세의 나이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서 상파울루 성전에 방문했다. 가장 최근에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나이가 107세였다.

성전 의식을 받는 동안 플로리페스 자매는 조금도 쉬려 하지 않았다. 성전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서 피곤한 줄을 모른다고 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녀는 상파울루 시내를 구경하고 싶어했다. 거리, 상점, 그리고 주변 경치에 진속해지자, 눈에 띄는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즐거운 감탄사를 연발했다. 특히 많은 차와 비행기, 사람들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달구지와 마차만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제 109세인 플로리페스 자매는 이미 자녀들 중 다섯 명이 먼저 사망했을 정도로 장수를 누리고 있다. 그녀는 아직도 직접 농작물을 키워서 수확하고 직접 요리를 해먹고 있으며 아플 때는 미망인이 된 딸이 돌보아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집회소에 일찍 나온다.

플로리페스 자매는 삶의 고난과 역경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허리도 휘었지만, 그녀는 대단한 결단력과 인내를 보여 주며 고결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녀는 지부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항상 영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라고 격려한다. 방문 교사들이 찾아올 때면 그들에게 물문경을 읽어 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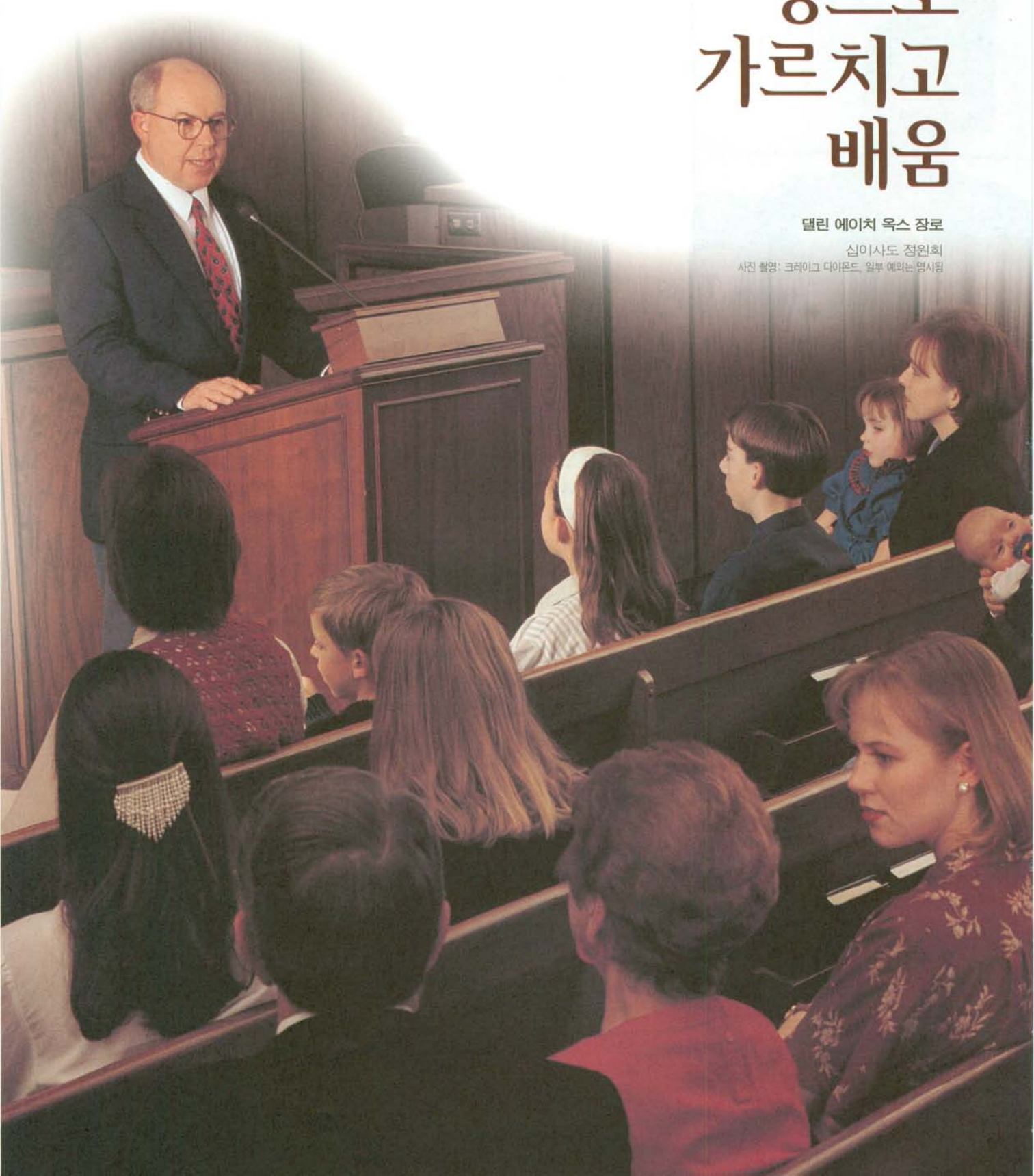
플로리페스 자매는 야고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 5:10~11) □

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일부 예외는 명시됨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르치고
배운다면 주님은 영을
보내 우리의 덕을 세우고
이해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1931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교회의 법”이라고 알려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초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14) 그 후 수개월 후에 예언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교리와 성약 50편에 수록된 내용의 가르침을 더 받았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성임되었더냐?”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로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 들인 자가 진리의 영이 전파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도다]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13~14, 21~22)

이 친숙한 참조 성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르침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친숙하여 마치 표어처럼 되어 버렸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사용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영, 즉 성신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자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과의 교통을 결정하는 몇 가지 원리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주님은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리와 성약 42:14) 위의 지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 가르치게 될 사람들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만나

도 하는 목사들은 모두가 신학에 관한 한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문 직업 성직자가 없습니다. 신학 교도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전문 직업 성직자들이 여러 해 동안 전문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한 주제들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철학과 형이상학, 세계사와 언어, 과학과 예술을 공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주님의 영을 지니지 않고 또 영의 지시에 따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정한 규칙대로 싸워서 세상을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은 모든 개개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의 사자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진리를 전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을 통하여 진리는 몸의 근육에 배어들어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집, 3권[1954~1956], 1:47~48)

영으로 가르침에 관한 주된 계시는 교리와 성약 50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도록]”(14절) 성임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성임되거나 성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전파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는 영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지력에 의지하여 가르치는가 하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50편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가르치면, 가르침 받는 사람도 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교사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 (22절)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20절) 50편의 계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가르친다면, 주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고 이해를 밝혀 줄 수 있도록 영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성에 의존하여 가르친다면,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준비나 다른 사람의 지혜나 글에 노예처럼 속박된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그 원리를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을 때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러하면 네 허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

“다음의 말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정확하며 올바르다 하더라도 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한다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력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곳에 와서 가르침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전적으로 지력에 의해 전달했다고 합시다. 제가 한 모든 말이 참되며 어떠한 실수도 없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인간의 지력에 의한 발표일 뿐입니다. 이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라.’ (교리와 성약 50:18)

“즉 제가 영의 능력이 아니라 지력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성과 논리라는 지력은 훌륭한 것이며, 방법을 준비할 수는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을 받아들일도록 마음을 준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능력으로 가르칠 때에만 개심이 일어나고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어리석은 가르침[소책자], 1981, 9쪽)

만약 우리가 논쟁 기법이나 세일즈 방법이나 혹은 그룹 심리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성신은 진지한 탐구자에게 말한 것이 참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지적 능력인 이성과 논리는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보다도 그러한 것들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그 진리를 강조 하셨습니다. “선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의 행하게 하며 겸손히 걷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



영으로 가르치려면 우선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 청결하여 그분의 영이 우리
개인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교리와 성약
11:22)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

영으로 가르치려면 우선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앞에 청결하여 그분의 영이 우리 개인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
은 원리는 경전의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
으며, 살아 계신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가
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청결하지 못한 성전
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교
린도전서 3:16~17 참조) 따라서 우리는 회
개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고백을 함으로써,
그리고 불순한 행동과 생각을 피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청결해야 할 필요성은 우
리가 매주 듣는 성찬 축복 기도에서도 명
백히 드러납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
가 성찬을 취할 때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매우 신성하고 엄숙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항상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올리버 카우드리를 위해 주어진
계시를 통해 주님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하고 평안을 주는
영의 권세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나 기억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의 이
름을 더럽히거나 저속한 욕설이나 음담패
설을 입에 담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
하겠다는 약속과는 상반되는 환경이나 영
향력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
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성찬 축복문에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교리와 성
약 20:77)리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법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선택한 역원에 대적한다면 개인
적인 계시의 매체인 성신이 동반하지 않습
니다.

계시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
법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한 말씀을 듣고 연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을 읽거
나 영감에 찬 지도자들의 말씀을 읽거나 귀
를 기울임으로써 영을 얻게 됩니다.

요컨대 계시의 매체인 주님의 영은 불
결한 성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우
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키고 생각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자 한다면 우리
는 준비라고 부르는 힘든 일에 힘을 기울여
야 합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교회가 조직된 지 1년

이 지났고 아론 신권이 막 회복된 시점인
1829년 5월에 이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
다. 주님은 하이람에게 그의 동생인 예언
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에서 하이람은 아직 가르치도록 부
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리고 그는 부름을 받기까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나의 말을 전파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러한 연후에야 내가 원하면
나의 영과 나의 말 곧 인간을 확신시키는 하
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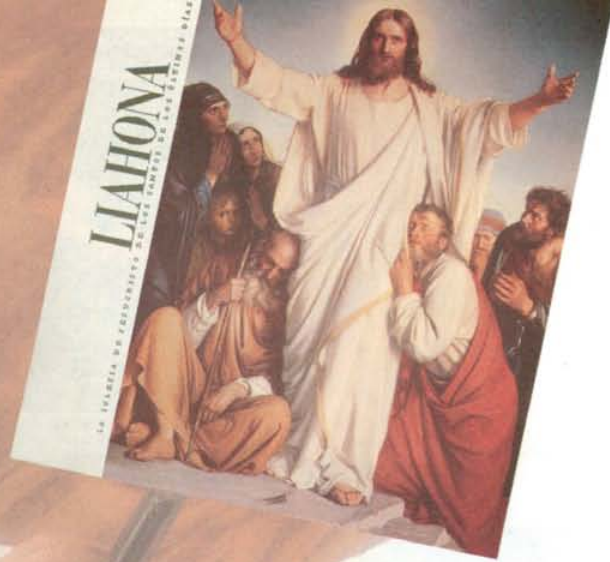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네 화평을 건지하라. 인
간의 자녀에게 이미 전파된 나의 말을 연
구하라. 또한 인간의 자녀에게 나타날 나
의 말 곧 지금 번역되고 있는 나의 말을 연
구하라.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 사는 인간

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줄 모든 말씀을 얻
게 될 때까지 연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이 이에 더하여지리라.”(교리와 성약 11:
21~22)

수년 후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신권
에 관한 계시를 주시면서, 주님은 성도들에
게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더 주셨습니다.
“너희는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
아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모든 사
람에게 적합한 분량대로 말해야 할 말을 주
시리라.”(교리와 성약 84:85)

요컨대 주께서 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
하셨다고 해서 개인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술
한 성구들을 살펴보다도 주님은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해
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원들에
게,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몸가짐
을 단정히 하는 것, 명확하게 말하는 것,
그들의 문화와 개인 및 가족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과 그 외에도 많
은 것들이 준비의 일환에 속합니다. 그리
고 준비는 영으로 가르치기 위한 선결 조



주께서 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개인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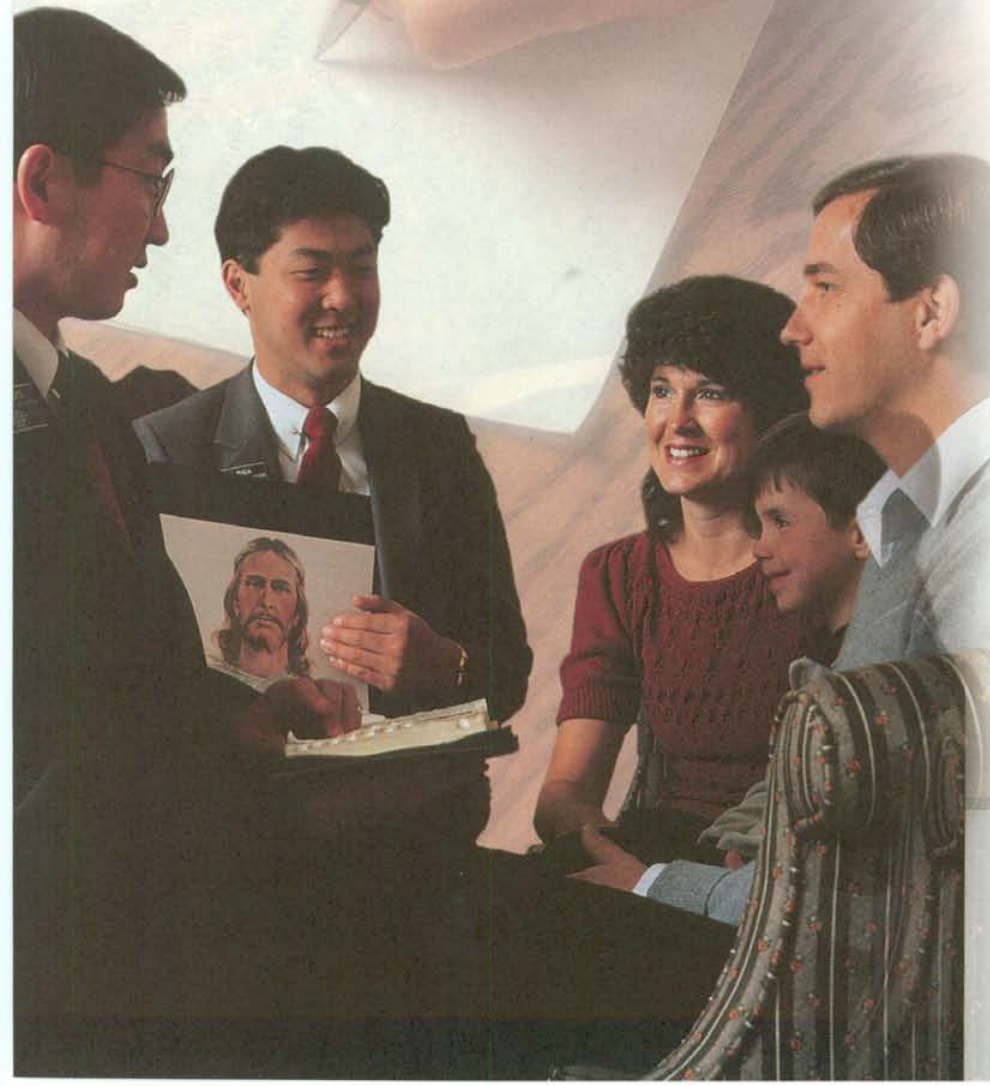
건입니다.


영에 의해 인도받음

준비 다음으로 오는 원리는 영에 의한 인도를 받고자 소망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제쳐 두고 영이 이끄는 대로 기꺼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이며 적용하기는 더욱 힘든 원리입니다.

예전에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원리를 준비하지 않는 변명 거리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이 나에게 준비한 말씀을 버려 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 두”는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복음의 가르침을 쌓음으로써 끊임없이 일반적인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말씀 지명을 받거나 공과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지 않는 한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데 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들은 더하고, 어떤 것들은 빼야 하는 확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깊게 준비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그 준비에만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의 교통

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통용되는 몇 가지 원리에 관해 토의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기를 갈구하는 사람, 교회의 모든 회원이 영과 교통하는 데 적용되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우리는 주님이 정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될 때 자신들의 편의에 맞추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주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 17년 전 제가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순종의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희생의 법을
설명해 주었다.

대학에서 강연해 달라고 부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편이에 맞는 특정한 시간과 대통령이 방문해서 연설해 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 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미국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브리감 영 대학교까지 와서 2만 6천 명의 학생들에게 연설해 달라고 청하면서 조건을 내걸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하지 않는 한 그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초대한다 하더라도 "언제 오시건 몇 시에 오셔서 무슨 말씀, 무슨 일을 하시건 대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방문 일정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2만 6천 명으로 이루어진 조그만 지역 사회에서 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방법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방문이나 의사 소통에 대해 조건이나 개인의 편이에 맞춰 시간을 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교리와 성약 88편에 나오는 위대한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원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

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63절)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67절 참조)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 위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68절)

이 계시에서 언급된 다음 원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의사 전달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강압할 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천둥 소리나 눈부신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서 일컫는 것처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옵니다. (열왕기상 19:12; 니파이일서 17:45; 교리와 성약 85:6 참조) 이 원리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경전에 기록된 위대한 현시만을 바라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요하고 미세한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리치는 선생에게만 배우기로 마음먹고 가장 현명한 가르침이 속삭임으로 올 때는 듣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속삭임으로 주어집니다.

깨달음과 평안으로서의 계시. 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1829년 4월에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들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편에 수록된 이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2~3절)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

의 영을 "급속한 관념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깨끗한 예지"라고 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4쪽)

또 다른 계시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자신이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과 "내가 간구할 때마다 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14)는 말씀을 받았다. 그 가르침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내게 간구하였고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주었음을 알고 있으니"(교리와 성약 6:15) 주님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이람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이러한 성구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통해 그가 "이러한 일이 참된지"(교리와 성약 6:22) 알기 위해 기도했던 때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올리버에게 어떻게 계시를 주셨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느냐?"(교리와 성약 6:23)

우리는 이러한 계시에서 하나님이 그분

의 아들딸들을 영의 권세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영의 권세는 주님께 무엇이든 여쭙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을 밝혀 줍니다.

계시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계시로부터 영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 한 주님의 계시도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후에야 확증을 받게 됩니다.

1829년 4월에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받은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올리버가 몰몬경을 번역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을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리와 성약 9:7~8)

이것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 받아들여지는 가르침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의 가르침은 흔히 느낌으로 옵니다. 이 사실은 지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하는 사

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신으로부터 오는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소로 인한 발화와 같은 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미라면 나는 한번도 가슴이 뜨겁다는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란 문자 그대로 "고요하고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는 말에는 조용한 확신과 위안과 따뜻함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부드럽고 고요하고 사랑스럽고 감미로우며, 온화하고 친절하며, 질서 정연하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느낌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조셉 필딩 맥콤키와 로버트 엘 밀레, 성신(1989), 14쪽)

영이 우리, 심지어 계시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느낌을 통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보여 주는 개인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소비에트 연방 최고 회의에서 발탁된 세 명의 대표가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템플스퀘어를 구경시켜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북 방문자 센터로 모시고 가서 그림들과 그리스도 석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태버내클로 모시고 갔는데, 그 곳에서 그들은 일요일 아침 태버내클 합창단 방송 실황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들 몇 명은 그 분들과 함께 템플스퀘어의 회의실에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그 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조금 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석 대표였던 콘스탄틴 루벤첸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통역자가 통역한 그의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 오기 전에는 물론 교회가 열성주의자들로 구성된 지극히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 센터의 아름다운 그림들과 석상들을 보고 합창단이 노래한 아름다운 무대와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오르간 소리를 보고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것은 그가 느낀 바를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오르간과 합창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연주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습니다.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제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들의 노래를 통해 이 세상의 느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소비에트의 의원은 느낌을 받았고 그 분이 영의 증거를 받았음을 제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느낌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계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분의 영을 통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빈번하게 계시를 기대하는 잘못을 범한 까닭에 그릇된 길로 이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

로는 영의 역사하심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강하고 인상적인 영적 경험은 우리들에게 그리 흔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깨달음을 알도록” [1982], 337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즉 영의 가르침과 지시는 무제한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빈번하게 주어지지만 무한케도처럼 끝없이 계속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영의 지시나 구체적인 인도를 받지 못한 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행히도 구세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서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용납되는 선 이상의 행동을 유발하는 판단을 할 경우,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제지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과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후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아담에게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게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그와 대화하셨습니까?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모세서 5:6)

가장 뛰어난 복음 교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이 베렛은 끝없이 계속되는 계시



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사소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영의 인도를 간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며 우리를 혼동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짓 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이 교회에서 가장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것에 관하여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이 가장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러한 응답은 그릇된 원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성신, 29~30쪽에서 인용)

나는 또한 다음 견해에 동의합니다. “계시의 영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어진다 고 말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권 지도자들의 조언과 지시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제재를 받기에는 너무도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천사 및 다양한 천상의 존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한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의 권고에 조금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숙성되면 교회와 국가의 법보다 자신이 상위에 있다는 교조주의적인 심리로 발전합니다.”(성신, 31쪽)

계시와 간증. 시현은 실제로 일어납니

다. 장막 저편에서 음성도 들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극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하고 비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놓고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교리와 성약 63:64 참조), 만약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놓는다면 계시의 통로가 닫혀지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계시는 시현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말하는 음성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나 느낌으로 옵니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계시가 실재함을 간증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계시를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인도한 친숙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는 그들이 받은 간증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간증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너무도 기적적이었기 때문에 경전에 수록된 몇 가지 개별적인 예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교회 회

원의 대다수는 점진적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계명을 지킴에 따라 빛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의로움을 바라는 소망을 더하게 됩니다.”(“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1976년 올해의 영적인 말씀[1977], 399쪽)

요약

영으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우선 첫째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청결하게 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영의 인도를 소망하며 영의 인도를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정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시는 보통 경전에서 말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흔히 우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용인되는 선을 넘어 헤맬 때 영의 신중한 느낌에 따라야 합니다. 계시는 실제적인 것이며 주님의 방법에 따라,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어 집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진실함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영을 언제나 동반할 수 있는 권리인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요한복음 14:26, 16:13 참조) □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의 "첫째 되고 으뜸가는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에 이르는 교통의 길을 여는"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 41쪽)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29)

유타 주 샌디의 폴라 토마스 자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회고담입니다.

"저는 활동이 저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 덕분에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개인 기도에 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나 모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저는 선생님께서 가서 기도하는 방법을 여쭙 봤습니다. 선생님은 종이를 꺼내 친절하게 적어주시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폴라야,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어머니는 자주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시도 써드리고 어머니날에 특별한 행사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봐 주고 번 돈으로 선물도 사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짐이 정말 무겁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이 써주신 종이를 들고 초등학교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

이 되어 집 안이 조용해지자 전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처음으로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7년 동안 드렸습니다.

"열여섯 살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축복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사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폴라, 하나님은 그대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대가 살아가면서 어머니에게서 선물 받았던 깊은 사랑의 느낌들을 되돌려 드릴 날이 오리라. 그대는 그대의 어머니에게 행복뿐 아니라 기쁨까지도 선사하게 되리라.'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고자 하신다는 굳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제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사실을 제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저는 어머니를 위한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 그날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날들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어머니께 기쁨의 선물을 드려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이것이 이 계시의 영이니." (교리와 성약 8:2~3) □



순결의 축복

바넷사 무디

사진, 글쓴이 제공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결혼 전에는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한 은밀한 관계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메이카 킹스턴 지방부 린스테드 지부의 성찬식에서 말씀을 하도록 지명을 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복음 원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 전에 순결의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순결'이라는 주제를 찾으면서 저는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차에는 순결의 법이 '가족의 구원'이라는 단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개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지상과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 이 율법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개인과 가족이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배우자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뢰한다면, 자녀들이 결혼 성약이 존중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자녀들이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배우면서 자라난다면,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항상 자신을 아름답고 정결하고 건전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가정의 힘은 얼마

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기 7개월 전에, 우리의 둘째 아이이자 맏딸인 브리애나가 태어났습니다. 브리애나가 태어날 무렵 저희 어머니께서 아기에게 입힐 아름다운 흰색 새틴 드레스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귀한 드레스는 할머니가 첫 손녀에게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메이카까지 소포로 우송해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드레스를 비닐로 포장한 다음 큰 상자 안에 넣어 보내셨습니다. 도착한 드레스를 본 순간 남편과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드레스는 깨끗하고 희고 아름다웠으며 어린 여자 아이가 입기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러미를 풀고 비닐 포장을 벗겨낸 그 드레스에 실수로 잉크를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얼룩 제거제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라색, 녹색, 빨간색 등 다른 색의 잉크를 더 떨어뜨려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욱 놀라서 드레스를 망치지 말라고 사정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라든지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이라든지 따위의 너무도 당연한 이유들을 들면서 말입니다. 드레스 하나를 갖고도 그렇게 노력할 텐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드레스가 항공 우편으로 먼 곳까지 우송되어 왔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지상에서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 우리는 더럽혀질 수도 있고 파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호막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 그대로 목적지



제레미와 바넷사 무디 부부. 그들의 아들 저스틴, 하얀색 새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딸 브리애나(왼쪽) 무디 형제는 자메이카 킹스턴 지방부 린스테드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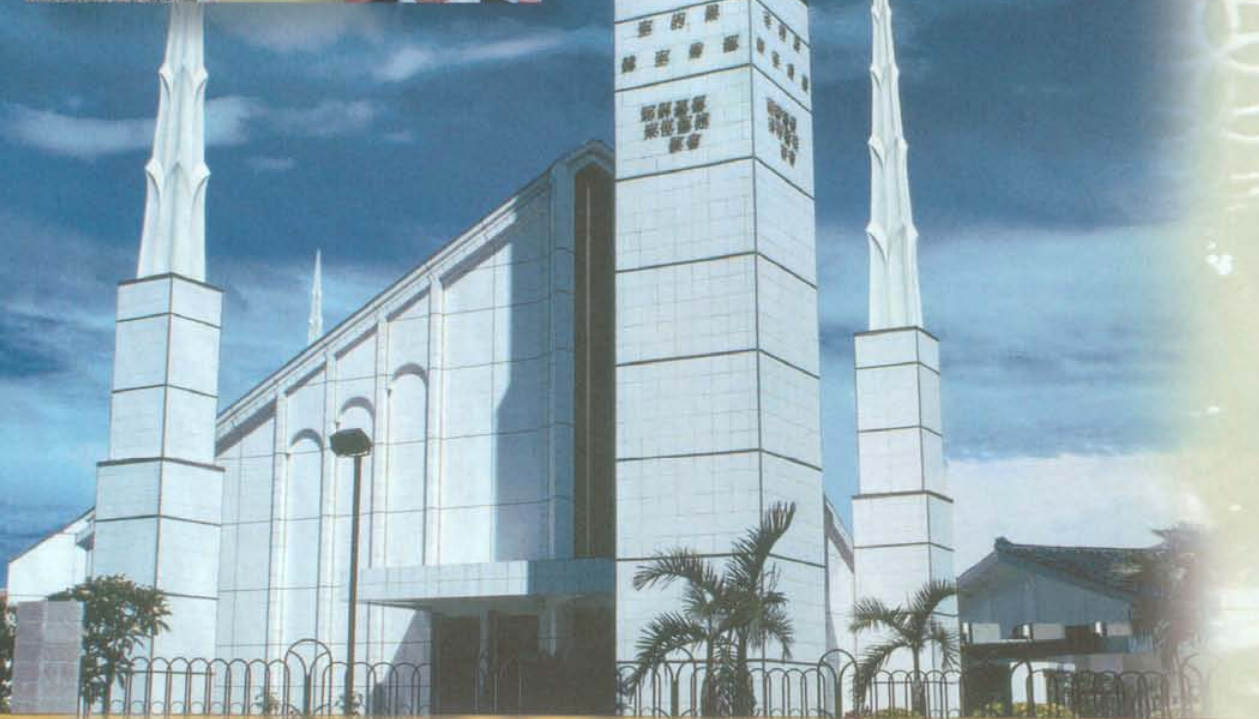
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순결의 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열정과 욕망은 선하고 유익하며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큰 기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 평생토록 슬퍼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순결의 법은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 주고 행

복하게 해주며,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이라는 보호막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주는 법들을 지킴으로써 깨끗하고 순수하고 합당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저희 딸에게 입허라고 보내신 선물이 깨끗하게 포장되어 도착했듯이 말입니다. □





대만



신앙의 40년

크리스토퍼 케이 비길로우

사진 촬영: 크리스토퍼 케이 비길로우

아름다운 섬 대만에 신앙의 뿌리가 널리 뻗어 나가고 있다.

대만 타이페이 성전 사진을 넣은 큰 액자가 대만 교회 회원인 창치쑤의 수납 기계 사무실 안 반침 벽에 걸려 있다. 그의 새로운 신앙을 상징하는 성전 침탑이 하늘로 치솟아 있다. 성전 사진이 걸려 있는 그 자리에는 한때 직원들이 향을 피우던 작은 사당이 있었다.

“대만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체에는 직원들이 변영의 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후 저는 한때 사당으로 사용되던 곳에 성전 사진을 걸었습니다.”라고 창 형제는 말한다.

그의 이러한 모범은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대만 회원들의 신앙과 용기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대만 타이쑤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창 형제는 최근 자신이 1995년에 침례받기 전에 담배를 끊었듯이 담배를 끊는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제안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남편보다 10년 먼저 침례를 받은 창 형제의 부인 장우란후이는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 남편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창 가족은 대만 타이페이 성전에서 1996년에 인봉 의식을 받았다.

“아름다운 섬”

중국 본토에서 1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만은 1590년에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아름다운 섬이란 뜻의 일라포모시라

반대쪽, 위: 타이페이 동 스테이크, 페이 토우 와드에 다니는 첸성춘과 그의 딸 루첸시엔펜. *왼 쪽:* 타로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마달리 디보우선 교각. *오른쪽:* 카오슝 스테이크, 카오슝 제1와드, 레펜펜. *아래:* 첸벤자민과 첸야오 민디와 그들의 자녀 토미와 지미, 카오슝 제1와드; *배경:* 타이페이 타이완 성전. *위:* 음양을 묘사하는 중국 전통 조각

오늘의 대만

인구 2200만 명

면적 - 3만 5,900평방 킬로미터
(네덜란드 면적에 필적함)

교회 회원수 - 2만 4,000명(인구
의 0.1퍼센트 가량)



성전 - 타이페이

선교부 - 3 (카오슝, 타이쑹, 타이페이)

스테이크 - 6 (카오슝, 타이쑹, 타이난, 중앙 타이페이,
동 타이페이, 서 타이페이)

지방부 - 5 (쑹신, 신추, 후아 리엔, 핑퉁, 타오 유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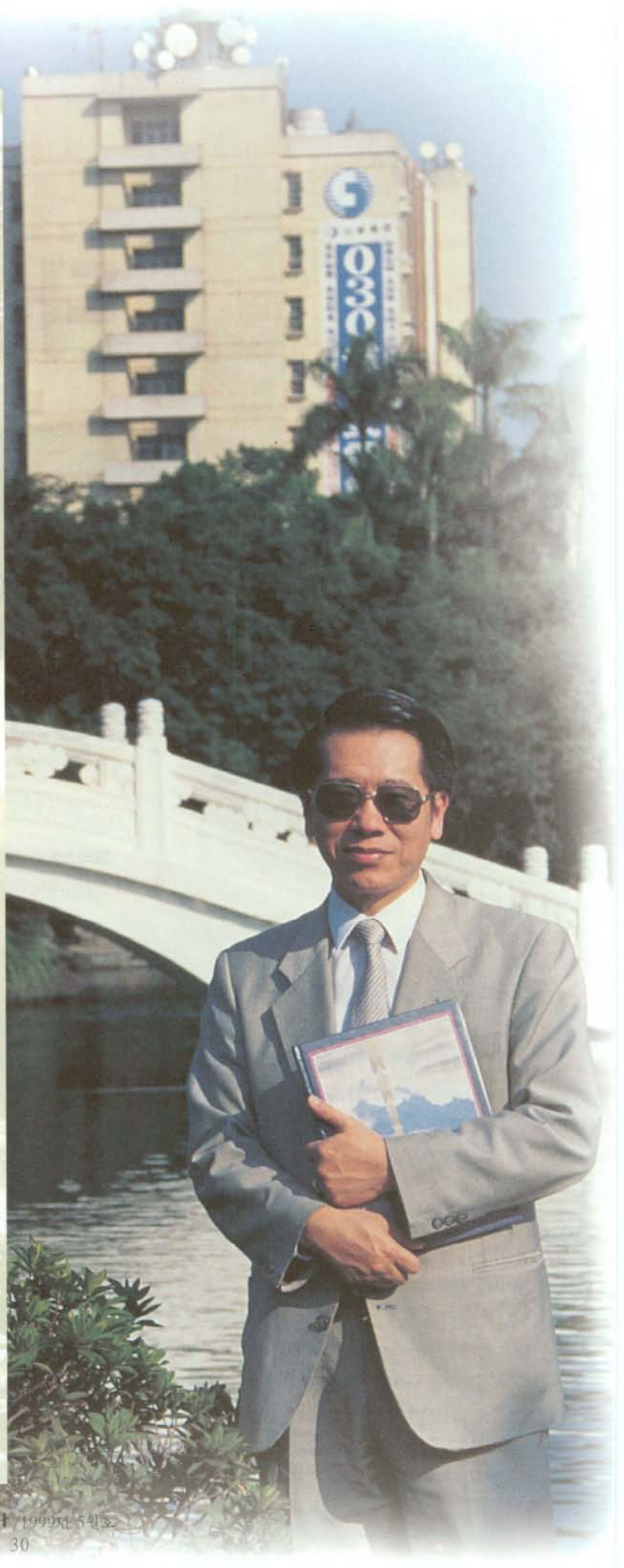
와드 - 31

지부 - 31

교회 소유 집회소 - 22

임대 집회소 - 17

오른쪽: 타이페이 타이완 서 스테이크 부장의 양충팅 스테이크 부장이 타이완에서의 교회 역사 40년을 기념하는 책을 들고 정원에서 있다.



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섬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서방 세계에서 포모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원래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만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왔다. 대만이란 한자는 "계단식 만"을 뜻한다.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후손들이 이 섬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들의 후예들 대부분이 이 섬의 고산 지대에 살고 있다.

이 섬의 주도권은 자주 바뀌었다. 1624년부터 1661년까지는 덴마크 상인들이 대만을 지배했고, 1661년에 중국 왕조가 그 뒤를 이었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이 지배했다. 또 1949년에 중국 민족주의 지도자였던 장개석은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난 후 군사, 정부, 경제계 인사들 200만여 명을 이끌고 대만으로 왔다. 현재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알려져 있다. 만다린 중국어가 공식어이지만 대만 사투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대만은 농업 국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주요 경제 강국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비싼 음식, 집세, 자동차 유지비 등으로 인해 많은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근무일이 6일 혹은 7일로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관을 수려한 대만 동부 산악 해안가에 위치한 소도시인 타이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다. 지역 회원인 첸순춘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임 아시아 지역 회장이었던 칠십인 정원회의 존 에이치 그로버 그 장로는 그러한 여건을 이같은 말로 밝혔다. "충실한 회원들은 영적으로 초점을 맞춘 생활을 계속하며, 가족과 교회와 일과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는 누구든지 물질주의에 대한 균형 감각을 지니고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대만 교회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훌륭한 본보기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대만 타이페이 동 스테이크의 타이페이 제3와드 쉬 옹관핑 감독은 부친을 그러한 모범을 보여 준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버님은 여러 해 동안 감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교회는 제 집과 같았고 아버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문과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집회소를 청결하게 하는 것을 도왔고 열네 살이 되어서는 서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일

을 하라 가족을 돌보라 바쁘지만,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교회 봉사를 위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직장과 가정에서 보다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쑹 스테이크의 타이쑹 제1와드 마주민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월요일 서번이나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하거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 밤은 아내와 데이트하는 날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직장 선택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훌륭한 직장을 축복받아 왔습니다."

직장에서의 과다한 업무와 교회 봉사로 인해 지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교회 부름을 줄 때 세심한 배려를 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봅니다."라고 대만 카오슝 스테이크의 카오슝 제5와드 감독단 제2보좌인 양쉬링 형제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부름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실의에 빠지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열다섯 살 때 침례를 받은 첸순춘은 어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행사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배웠다. 선교

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기업이 파산하자 부친은 그에게 힘을 보태 가족을 부양할 것을 부탁했다. 그는 부친에게 이렇게 말했다.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제가 선교 사업에 나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보시지요."라고 제안했다. 부친은 그 시험을 해보기로 동의했고, 쉐장로는 축복을 주시기를 열심히 간구했다. 선교 지역에 부임한지 한 달 반 만에 부친으로부터 조기 귀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지를 받았다. 돈벌이가 되는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쉐 형제는 카오슝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받는 압력

대만에서의 경제적 경쟁은 국가 의무 교육의 마지막 3년에 들어갈 시기인 열두 살 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무척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라고 타이페이에서 교수로 일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랑쉬안 장로가 말한다. 타이쑹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1보좌이자 영어 과외 교사인 잔주이장은 까다로운 요구 조건으로 인해 대만 학생의 30~40%만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같은 압력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대부분의 훌륭한 대만 학부모들은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자녀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만 청소년들이 당면한 학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가족들은 학업에 쏟아 붓는 시간을 줄여서 삶의 다른 중요한 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로버그 장로는 말을 이었다. "집안에서 유



대만 교회의 역사

1921년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중국 지역을
헌납함

1956년 -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대만에 도착함

1959년 - 마크 이 피터슨 장로가 대만을
재헌납함

1965년 - 물문경이 중국어로 출판됨

1966년 - 타이페이에 첫번째 집회소가 헌납됨

1971년 - 대만에 첫번째 선교부가 설립됨

1973년 - 교회 교육 기구가 프로그램을
시작함

1975년 - 회원이 7000여 명에
달함

1975년 - 교리와 성약이 중국어로
출판됨

1976년 - 타이페이에 첫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됨

1976년 - 값진 진주가 중국어로
출판됨

1984년 - 타이페이 성전이 헌납됨

1998년 - 회원이 2만 4,000여 명에
이름

“행복한 주방”이라는 이름의 스테이크
활동 중에 전시물 앞에 선 타이
페이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폭풍 속의 수병



웨이드 린은 도서관에서 선교사를 만난 후 1993년에 교회에 가입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2년 간의 의무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기 귀환

해야 했다. 해군에 배속되어서도 웨이드의 선교 사업은 계속되었다.

수병들을 위한 만찬에서 함장은 모든 병사에게 맥주 한 병씩을 돌리며 건배할 것을 제의했다. 웨이드가 술을 거절하자 함장은 맥주를 마시든지 아니면 큰 병에 든 탄산 음료 두 병을 마시라고 했다. 웨이드는 속이 메스꺼워질 때까지 탄산 음료를 마셨다. 함장은 그 후에도 웨이드에게 심하게 굴었지만, 그는 굳건하게 표준을 지켰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재정이나 다른 중요한 임무, 예를 들어 군 사령부와 협상하는 일과 같은 임무를 자주 맡는다.

오른쪽: 스테이크 활동으로 가진 만두 빚기 대회에 참여한 카오송 청소년들



일하게 교회 회원인 학생들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단히 큼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대만 문화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들은 이겨낼 것이며 기도를 통한 선택으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이 가정 학습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자인 청소년의 3분의 1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은 더욱 성공적이다. 학생이 아닌 많은 젊은 성인 뿐 아니라 등록 대상 학생의 90퍼센트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저는 신학 연구원에서 가르치는 부름을 좋아합니다.”라고 타이페이 서 스테이크 양충팅 부장은 말한다. 그는 1977년에 대만에서 신학 연구원을 맨 처음 졸업했다.

종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복된 복음은 대만에 깊게 뿌리내린 종교 및 가족 전통과 문화적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국민의 93퍼센트가 조상 숭배에 큰 비중을 둔 가운데 불교, 유교, 도교가 복합된 종교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완전한 종교적 자유가 허용된다.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러 기독교 종파에 속해 있다.

살아 계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중국 전통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까닭에 대만의 젊은 개종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모의 통제가 점차 느슨해지고는 있지만, 특히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 서른 살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의 통제가 강한 편이다.



30여 년 전에 대만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최근에 타이충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칼 로버트 코너는 이렇게 말한다. “대만 사람들은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관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압력 때문입니다.”

타이페이 서 스테이크의 양충팅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대부분의 대만 부모들은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종이돈을 태우고 향을 피우며 음식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 연로한 노인들이 질겁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그러한 부모들의 관심을 특별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구도자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대화할 때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권고합니다.”라고 카오슝 스테이크의 예첸맹 부장은 말한다. “복음을 통해 자녀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부모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교회 회원들은 조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양충팅 스테이크 부장은 말한다. “우리는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고, 조상들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고, 그들의 영원한 복리를 위해서 의식을 베풁니다.”

타이충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1보좌인 잔주이창 형제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성전 의식을 베풁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느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저는 그때까지 성전을 13년도 넘게 다녔지만, 부모님을 위한 의식을 행할 때처럼 강하게 영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인봉 의식실에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아내는 어

머니를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984년 11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대만 타이페이 성전 헌납식에서 말씀하시던 중에 예전에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때 감옥 부지였던 곳에 세워진 이 건물은 죽음이라는 감옥 문을 열 것입니다.”(알 레이 니어 브리치, *동양에서부터: 아시아에서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1851~1996년(1998년), 292쪽*)

잔주이창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중국의 참배 방식과 구약 성경에서 행해진 의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중국의 전통적인 출입구를 보면 문설주와 상인방을 따라 붉은 지주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멸망의 천사들이 지나쳐 가도록 유월절에 행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배를 뜻하는 한자를 보면 방주 모양을 한 배와 여덟 사람이 보입니다. 아마 홍수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당과 사원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재물이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대만 문화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버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 미, 친절, 가족, 그 외의 다른 긍정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데 있어서 중국 문화는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문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던져 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똑같은 가치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이 수세기 동안 이미 가져왔던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어느 미망인의 신앙



순웨이리아 자매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세 딸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타이쑈 스테이크 건물을 청소한 후에, 가라테 도장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이 삶은 배움과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순 자매의 막내딸을 정기적으로 돌보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저는 보답으로 복음을 나눠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그 가족에게 리아호나(중국어판)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성전 명부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다. 마침내 그 집안 자녀들 중 한 명이 교회에 가입하였고 지금도 활동적으로 다니고 있다.

순 자매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와 함께 인봉 의식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느꼈다. 순 자매는 "저는 우리의 결혼이 영원하며 저는 남편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왼쪽, 배경: 타이페이 성전; 윗쪽: 대만 개척자 부부(왼쪽으로부터) - 타이페이 서 스테이크의 무차 와드 소속의 후웨이이와 후유메이수; 타이페이 중앙 스테이크 타이페이 제2와드의 리양윤셴과 리양우이아와 첸맹유 그리고 첸린시리양

사랑으로 인도함



첸지엔니엔은 1994년 부터 타이퉁 시의 자치 단체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약사 출신이며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그는 대만에서 공공 기관에 선출된 첫번째 말일성도로 알려져 있다. "정치는 갖가지 어렵고

까다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제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영감을 얻음으로써 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첸 형제는 말한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신문 기자들은 그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 회원임을 알게 된다.

대만에서는 많은 정부 관련 사업이 바나 클럽, 레스토랑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첸 형제 집무실 벽에는 사랑을 뜻하는 한자가 적힌 큰 액자가 걸려 있다. "저는 사랑에서 동기를 찾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대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첸 형제가 말한다.

대만 타이페이 동 스테이크 타이페이 제3와드의 라이쿠 안웨이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정의반 표상에 적어 놓고 있다.

것을 가지고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침범하려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구세주와 구원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교회가 강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있다. 1956년에 회복된 복음이 대만에 처음 전파되기 시작된 이래로 첫번째 스테이크가 세워진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인 20년만에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꾸준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많은 대만인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갈 준비를 갖춘 주님의 종들이 자신의 지역 와드 및 지부로 귀환하고 있다.

최근 후아 리엔 지방부의 지방부장을 역임한 첸순춘 형제는 1973년에 자신이 받았던 침례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를 나타내는 도표를 그린 적이 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중앙에 적은 다음 교회에 가입하여 신권을 받고,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선교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은 상호 연결된 수십 명의 가족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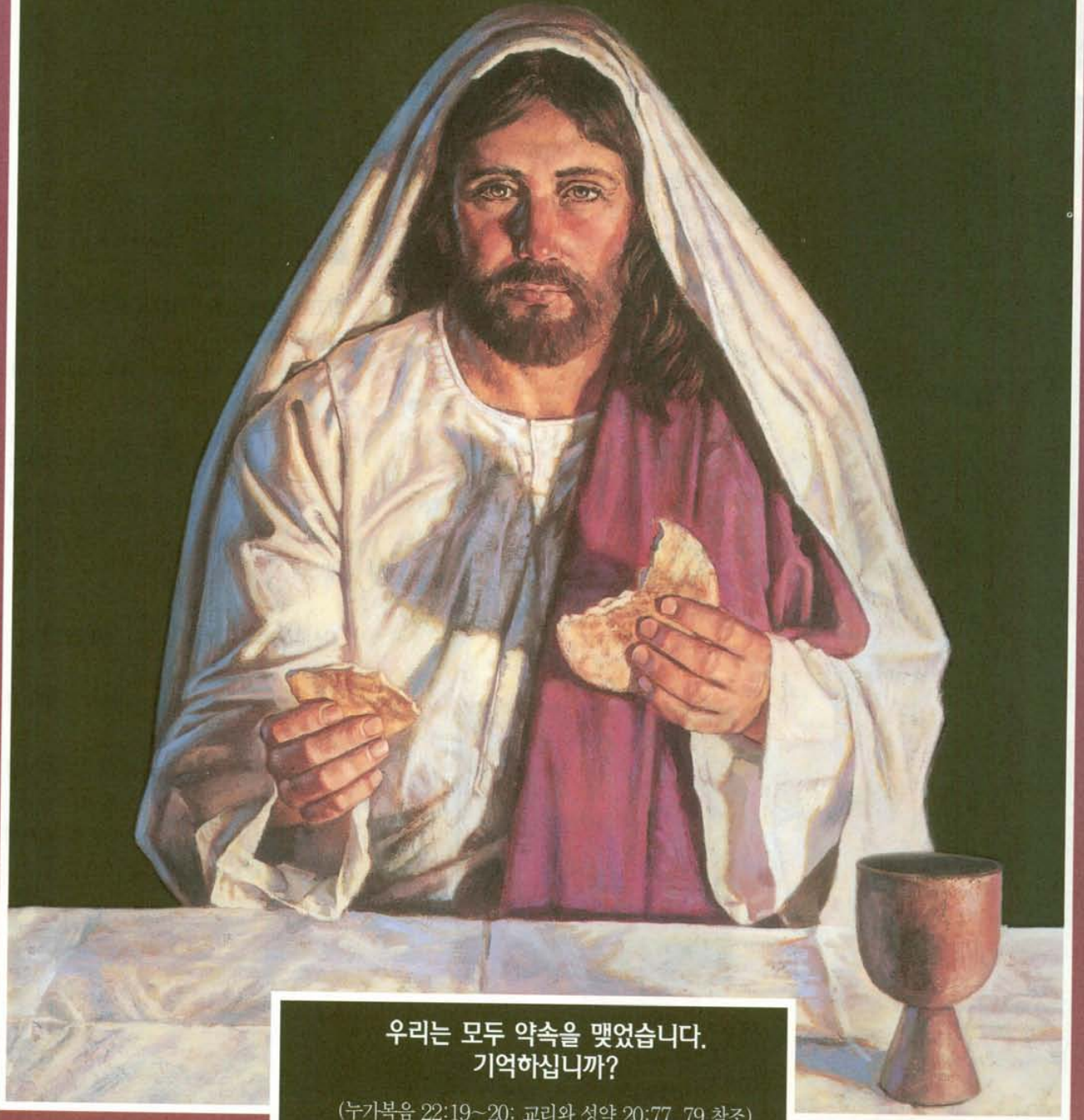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특별히 도표의 한 부분에는 성전 대리 의식이 행해진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도 적어 넣었다. 첸 부장은 26년 전 자신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와드가 형성될 정도가 되었다고 추산했다.

헤어릴 수 없이 많은 복음 씨앗이 심어지고 열매를 맺음에 따라, "아름다운 섬"인 대만이 해를 더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



좋은 메시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약속을 맺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2:19~20: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재능을 무시한다면 주님의 기분이 우리와 똑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약전서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5:14~29 참조) 만일 주님이 주신 재능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천부적인 재능은 거둬지고 말겠지만, 잘 발전 시킨다면 주님은 더욱 많은 재능을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어서 자신이 지닌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사진 촬영: 스티브 핀터슈

타고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도움과 영감을 구한다.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어떤 재능을 타고났다고 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가족 역사를 통해 조상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졌는지 알아본다. 어떤 재능은 유전되므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이미 지닌 재능이나 기술을 더욱 연마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정의 밤에서 부를 노래를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르친다.

형제 자매나 이웃의 어린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 사회나 교회의 운동 팀을 위해 심판이나 코치를 자원한다.

시나 기사 또는 콩트 등을 창작한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그림: 잭 제퍼와 스폫 헬티



사진 촬영: 영희 김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청년, 청년, 또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에서 흔히 선택하던 활동과는 색다른 활동을 선택한다.

도서관에서나 친구로부터 요리책을 빌려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다.

강좌를 통해 웅변, 드라마, 요리, 꽃꽂이, 자동차 정비, 수영, 또는 운전 등을 배운다.

지역의 운동 팀에 가입하거나 팀을 조직한다.

지역 사회나 학교의 합창단이나 극단에 가서 오디션을 받아 본다.



경전에서 배운 원리를 공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

사랑, 헌신, 용서와 같이 구세주께서 가지신 성품에 관한 글을 읽는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키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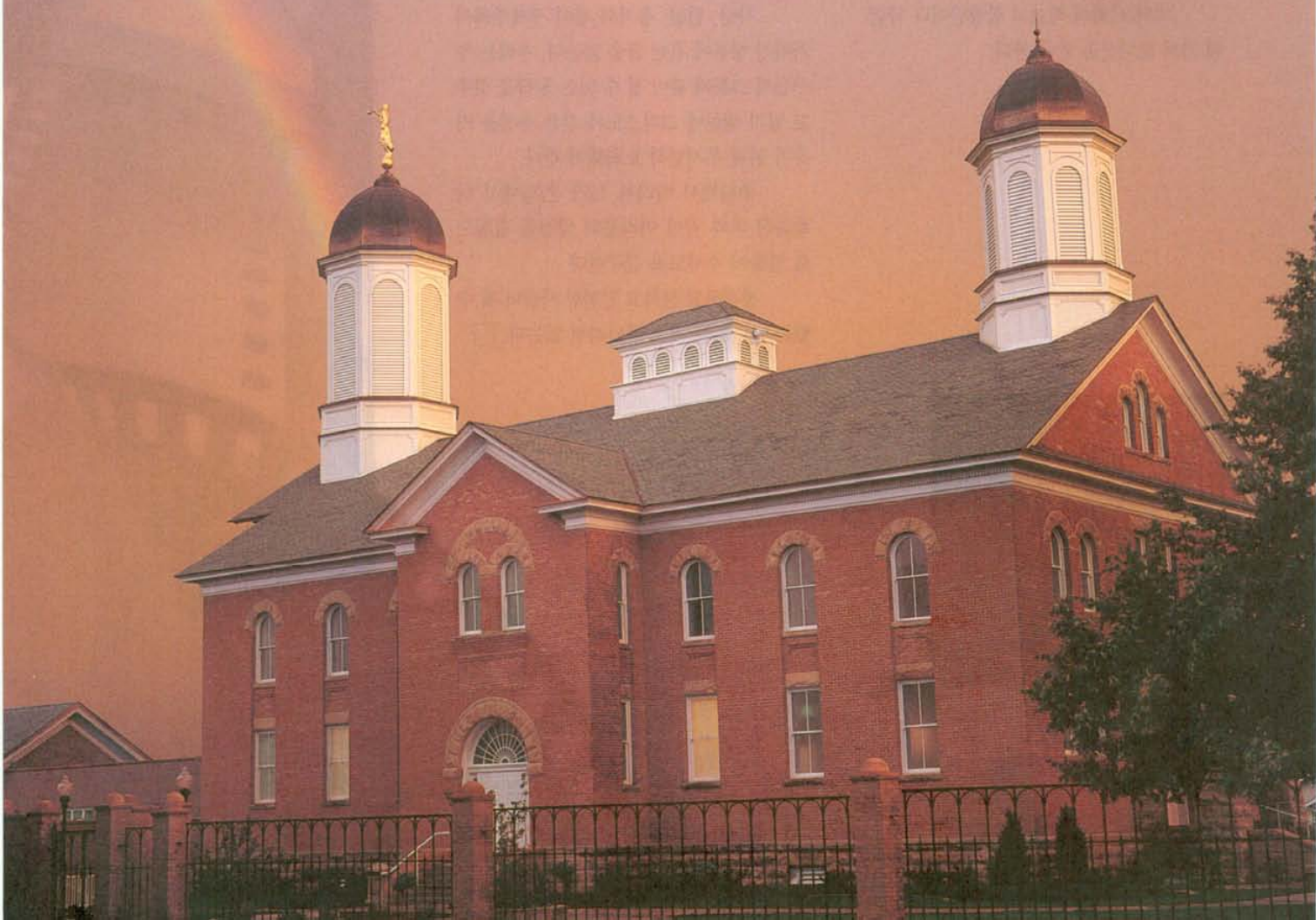
주님께서 이터서 12장 27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간구한다.

정직하고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달란트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스

성전 축복: 현세와 영원에서





교회는 30개 이상의 소규모 성전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발표와 함께 즉시 “과거 어느때에도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성전 건축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힝클리 대관장은 전체 성전의 수를 “금세기 말까지 10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전세계의 성도들이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7~88쪽, 참조)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성전과 성전 사업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이 시대는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날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이래로 가장 뜻깊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를 기뻐함”,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9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 세워진 모든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온 세대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일성도들의 간증을 우뚝 서서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오래 되었거나 새것이거나, 모든 성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이 생애에서의 삶처럼 분명하게 실재한다는 우리의 간증의 표현입니다. ... 이 성스러운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의 효력은 영원히 미칩니다.”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집”,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74쪽)

신권 열쇠를 위한 장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교회 안에서 특히 성전에서 행해지는 매우 영적인 사업에 관한 가르침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면에서 열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신권의 권능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상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시는 권세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인봉이라는 말과 열쇠라는 말과 신권이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의 대관장, 곧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 성도의 빛, 1992년 6월호, 21쪽)

성약을 맺는 장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말일성도들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침례 받는 그날부터 우리들은 영적인 이정표를 통해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 있는 중들을 통해 하신 약속을 항상 지

출판권: 인봉심, 사진 촬영: 인봉심, 인봉심, 리카르도 사, 워터, 주, 모티, 로우, 사진 촬영, 폰루크

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잘 지키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30쪽)



엘 톰 페리 장로: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네 가지 원리를 받아들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자신을 증거한 다음에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봉을 받고 나면 동반자와 연합되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의 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와 손자녀가 하나의 영원한 가족 단위 안에서 영원히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78, 79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영원한 결혼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약의 결과로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가족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 갖는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세와 영원을 통해 대대로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가족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영원한 가족”,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5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는 모든 궁극적인 약속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가장 마음 든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의 안에서 하나로 묶는 권세는 그 어떠한 힘,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어떠한 힘보다도 위대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약에 따른 권세이며 신권 의식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 온 것들”, 엔사인, 1986년 6월호, 32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교회의 모든 성인 회원들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상을 확인하고 조상을 위해 거룩한 성전의 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이 생애에서 갖게 되는 궁극적이며 만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인 잔치로서 영원한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81쪽)

성결케 하는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가족 역사 탐구의 일시적인 장애들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분명한 길이 혼돈의 들판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 거룩한 사업에 우리가 바치는 공헌이 작고 하찮게 여겨진다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교리와 성약 18:10)십시오…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으로 일을 한다면 바라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과 신앙과 기적”,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20~21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셨으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다.(베드로전서 4~6장; 교리와 성약 138:10~37 참조) 이 영들을 위한 침례는 논리적인 면에서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절정의 시대까지 성전 의식은 산 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은 구세주의 속죄와 영의 세계에서 성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18~37 참조) (“엘리아의 영”,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4~85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의식과 성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신성한 성전 안에서 구세주께서 위임하신 권능을 사용하여 행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조상들은 구원을 위한 의식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 : 사랑의 결실”,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7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는 수행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상황과 교회 부름을 고려하여 ‘끝까지 부지런’ (교리와 성약 10:4)히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마음을 감동케 하고, 기도하고, 교리를 배우고, 자녀를 가르치고, 살아 있거나 돌아가신 친척을 확인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고, 성전을 방문하고,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순리대로”, 성도의 빛, 1989년 12월호, 23쪽)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장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은사는 신체 뿐 아니라 영을 고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병고침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상에 성전 사업을 회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구원의 사업 가운데 중요한 일부입니다. 성전은 세상의 근심들을 잊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또한 성전은 평화와 평안의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 (시편

147:3) 주십니다.”

(“영적인 병고침”,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7쪽)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성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는 곳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예지와 효율성을 갖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합당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오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여러분은 권세와 지식과 빛과 아름다움과 하늘로부터의 진리를 갖게 해주는 개인적인 계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영생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나아오라”,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15~16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구원의 계획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는 가르침과 성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전 의식에 참여하면 영적인 강건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일상 생활의 굳건한 기초인 안내와 보호, 안전과 평화와 계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함”,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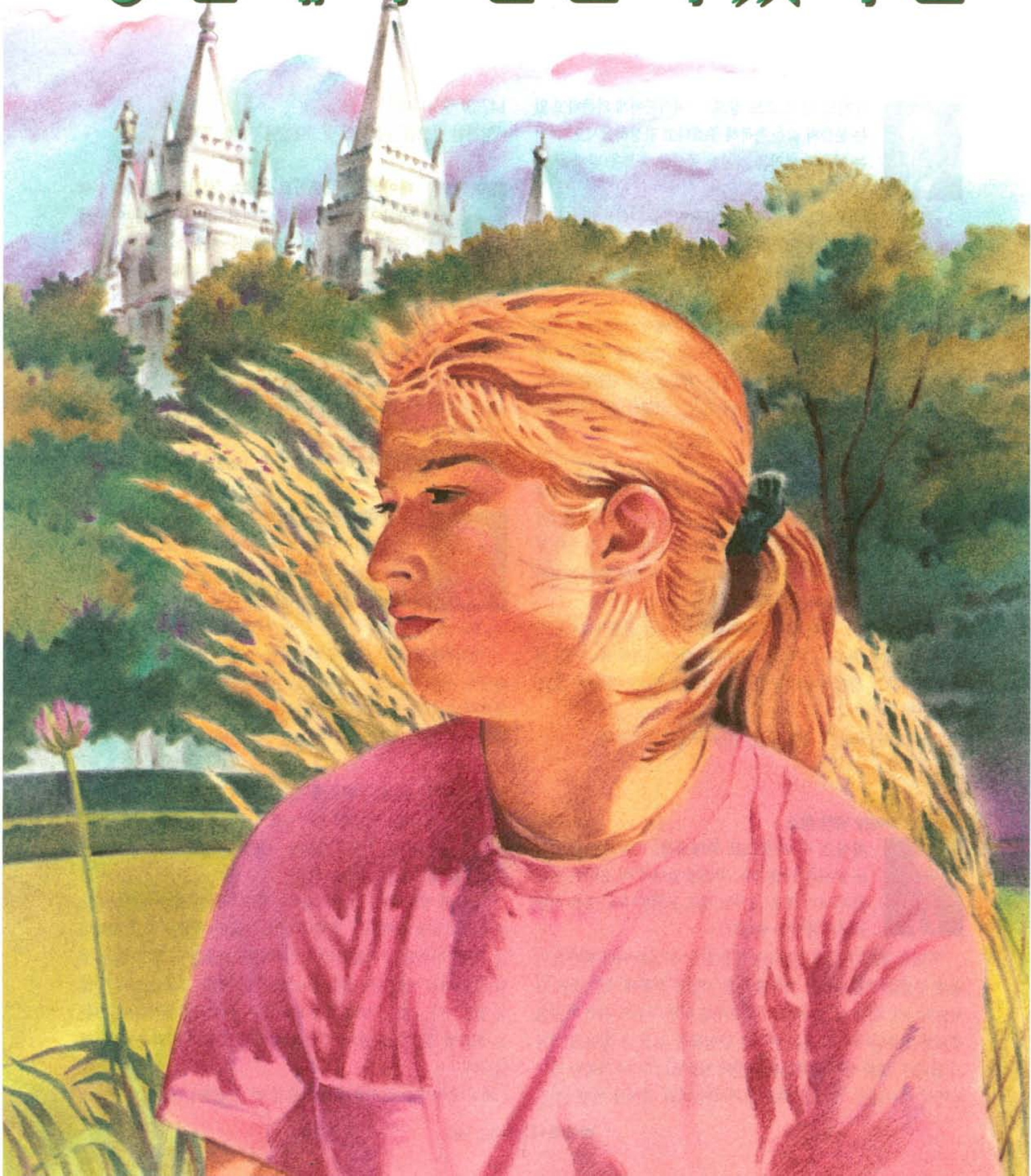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성약은 우리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같이...이끼라”,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78쪽)

“충실한 성도에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세상은 그들을 무찌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될지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을 내고 의심할지라도 그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끄럽게 성전을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용히 성전으로 모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비추라”, 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15쪽)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



태머러 리튬 베일리

달린 마쉬 그림

열한 살 때의 결심이 내 인생을 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

당시 우리 가족은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오빠와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번은 초등학교 교사가 성전 결혼에 관한 공과를 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에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해요.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영의 감동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꼭 성전에서 결혼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았지만 생각만은 예전과 달랐다. 언젠가는 성전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의 결심은 또 다른 결심을 가져왔다. 열네 살 때 성전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난 어느새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었다.

세미나리에 다니던 친구들은 청녀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도 청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성전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녀 표창도 받아 두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교회 활동을 늦게 시작했기 때

분에 쉽지가 않았지만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이 나의 늦은 교회 활동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목표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셨다.

내가 세운 목표 가운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모님께 매주 교회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때때로 혼자 교회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여동생을 달래서 함께 교회에 갔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어느덧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다. 낙담하여 성전에 가고자 하는 꿈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감독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회개에 관해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도와주셨다. 감독님은 성전에 가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노력과 희생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열여섯 살이 되면서 더욱 많은 결심을 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은 이렇게 충고하셨다. “여러분은 결국 자신이 데이트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십시오.” 나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교회에 다니고

올바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

이 모든 것 덕분에

나는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관해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함께 성전에 갈 만한 사람일까?”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더러 있

자리에도 함께하셨다. 그리고 내가 릭스 대학에 가는 것도 지원해 주셨다.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던 그 날도 그분들은 나와 함께하셨다.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 내가 배우고 열망해 왔던 축복들을 받으려는 순간이 다가왔다. 성전 침탑에서 이른 아침의 햇살이 눈부시게 반사되는 모로나이상이 마치 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듯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내가 결혼할 장소에 대한 결정을 미웠더라면 부모님을 밖에 두고 성전 안에서 결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복음과 성전의 중요성과 영원한 성약을 맺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결심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님들과 감독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가족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내 스스로가 먼저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성전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아직 내 목표가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뿐이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 □

성전에 가겠다는 결심을 내 스스로가 먼저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성전에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었다. 하지만 나는 올바른 장소에서 결혼할 올바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계획을 굳건히 지켰다.

부모님은 내 모든 결심을 지지해 주셨다. 두 분은 내가 청녀 메달을 받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다. 내가 세미나리를 졸업할 때에도 함께하셨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변형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7:1~3) 덴마크 힐레로드의 프레드릭스보흐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愛

사랑에 해당하는 한자는
대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만: 신앙의 40년”, 28쪽 참조